

영국, 이민 규제 대폭 강화



▲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영국이 특별한 기술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취업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현행보다 더 높은 영어사용 능력을 요구하기로 했다.

지난 20일 '파이낸셜뉴스'가 CNN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 취업이민제도를 발표했다. 개편된 점수제 이민제도를 보면, 정부가 정한 일련의 조건을 충족, 70점 이상(100점 만점)을 획득해야만 외국인이 영국에서 취업할 수 있다.

우선 ●사전 허가를 받은 후원자(고용주)로부터 일자리 제공(20점) ●적절한 숙련도가 필요한 직업(20점) ●필요한 수준의 영어 구사(10점) 등 기준을 충족해야만 해당 점수를 확보할 수 있다. 미달하면 해당 점수를 받을 수 없다. 급여 수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가점도 달라진다. 급여가 2만5,600파운드(약 3만3,000달러) 이상이면 20점, 2만3,040~2만5,599파운드면 10점, 2만480~2만3,039파운드면 0점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영국 가디언은 "영국 국경은 비숙련 노동자에게 폐쇄될 것이고 모든 이민자들을 영어로 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영국의 숙박업, 요식업 등 서비스업을 지탱했던 외국인 저임금 노동자들의 비자 발급이 매우 까다로워질 예정이다. 인력난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우리 경제를 유럽의 저임금 노동에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나 기술 투자와 자동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고용주들은 (이런 현실에) 적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브라질 카니발 축제 총격·강절도로 얼룩

브라질 카니발 거리 축제가 총격과 강·절도 사건으로 얼룩지고 있다. 올해 카니발은 이달 25일이며, 이에 앞서 지난 15일부터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다양한 거리 행사가 벌어지면서 축제 열기를 달구고 있다.

지난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에만 상파울루 시내 곳곳에서 강·절도 행각을 벌이다 현장에서 체포된 범인이 410여 명에 달했다. 상파울루 시 남부 루이스 카를루스 베히니 지역에서는 경찰이 범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총격전이 벌어져 최소한 5명이 부상했으며, 이 때문에 행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상파울루 시 당국은 이날 678곳에 마련된 무대를 중심으로 최대 1천500만 명이 몰려 축제를 즐긴 것으로 추산했다. 무대 수는 지난해의 490곳과 비교해 40% 가까이 늘었으며, 이에 따라 경제적 효과는 지난해의 23억 헤알(약 5천억 달러)을 웃돌 것으로 시 당국은 기대했다.

'삼바의 본고장'으로 불리는 리우데자네이루 시내 상주앙 지 메리치 지역에서는 축제 행렬이 지나는 도중에 총격전이 벌어져 3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다쳤다.

남동부 미나스 제라이스 주의 주도인 벨루 오리존치 시에서는 무장 괴한이 축제 행렬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하는 바람에 최소한 5명이 총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 리우 시에서 벌어진 카니발 거리 행사에 모인 인파(위 사진), 거리 행사장에서 경찰에 연행되는 강절도범(아래 사진). © 브라질 뉴스포털 G1

22일부터 25일 새벽까지 상파울루와 리우에 있는 삼바 전용 경기장인 삼보드로무에서는 삼바 학교들이 참가하는 퍼레이드 경연이 펼쳐지며 카니발 축제 열기는 절정에 이른다

유엔 주재로 리비아 종전 협상 재개

리비아 내전 종식을 위한 협상이 유엔 주재로 재개됐다.

지난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리비아에 있는 유엔 지원 대표부의 장 엘-알랑 대변인은 전날 AFP에 "협상이 다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엔 주재로 지난 18일 교전 당사자 간 2차 협상이 시작했으나 당일 트리폴리 항공이 공격을 받으면서 중단됐다.

리비아는 지난 2011년 '아랍의 봄' 민중 봉기로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이 무너진 뒤 2014년부터 수도 트리폴리 등 서부를 통치하는 리비아 통합정부(GNA)와 하프타르 사령관이 이끄는 동부 군벌 세력 리비아국민군



▲ 검은 연기에 휩싸인 트리폴리 해안

(LNA)으로 양분됐다. 그러다 지난해 4월 하프타르 사령관이 자신을 따르는 부대들에 트리폴리 진격을 지시한 뒤 내전이 격화됐다.

이후 GNA의 파예즈 알사라즈 총리와 LNA의 하프타르 사령관은 지난달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주재한 회의에 참석해 잠정적인 휴전에 동의했지만, 이후에도 교전을 종종 벌여왔다.

이에 유엔은 양측 대표 5명씩 참여한 1차 협상을 지난 3일 제네바에서 열고 양측의 의견을 조율했다. 당시 양측은 불안정한 휴전을 영구적인 정전으로 전환한다는 '대원칙'에는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합의를 끌어내는 데 실패했다.



Jin Hyuk Lee
213-210-2898
735 E. 12th St., #308
Los Angeles

CA Insurance Agent #: 0G84555

자동차 주택 사업체 생명.



라인댄스 초,중급 반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라인댄스! 배우기 쉽고, 심장과 관절 등에 무리없이 건강한 신체를 만드세요

장소
성공회 가든그로브교회 강당
13091 Galway St.
Garden Grove, CA 92844
가든그로브 아리랑 마켓 옆

시간 매주 수-목-금요일
오전10시30분

☎ 문의전화 (562)760-3406 에스터 장